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광주·전남 합동 연설회



5일 오후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연설을 마친 뒤 웃는 표정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 전 시장 비판에 할애했다.



5일 오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광주·전남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구동체육관 후문으로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있다.

행사장 안팎 '빅 2' 지지자 치열한 신경전

“광주 아픔 풀겠다”... ‘화려한 휴가’ 관람 이슈로 행사장 못 들어간 500여명 밖에서 열띤 응원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5일 오후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2천500석 규모의 구동체육관의 좌석은 참석자들이 가득 찼고 500여명은 아예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해 밖에서 지지후보를 응원하는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빅 2’ 지지자 신경전 여전=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 간 신경전이 행사장 안팎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 캠프 지지자 10여명은 행사장 출입을 위한 비표를 걸러 복사기로 위조해 입장하려다

당직자들에게 적발돼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표를 가지지 않은 이들이 입장하려다 진행요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양 캠프는 서로 “상대방 측은 왜 비표도 없는데 들어보내 주느냐”며 따지는 등 곳곳에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박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 정광웅 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려 “이 지역 조폭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일단의 젊은이들이 본인을 협박했다”며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장 안에서도 양 후보를 지지하는 참가자들이 1천여명씩 행사장 양 옆에 앉아 지지 후보를 연호하며 행사 분위기를 돋구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이 이슈=광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인 만큼 최근 개봉한 ‘화려한 휴가’를 관람한 느낌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제외한 3명 후보 연설의 중요 내용이 됐다.

박 전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화려한 휴가’를 봤다. 27년 전 광주의 비극에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아물지 못한 호남의 상처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역사의 아픔을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은 “어제 ‘화려한 휴가’를 보고 왔다. 제 인생은 80년 광주 때문에 180도 바뀐 사람이다. 전국 수석을 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대학에 간 나는 80년 5월을 본 뒤 학생운동의 길로 들어서 시위를 하다가 정학을 받고 구로공단에서 아학을 하고 공장에 위장취업

했다”고 인생역정을 소개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화려한 휴가’를 봤다. 아직도 한나라당은 80년 5월을 속죄 못 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단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했는데도 광주·전남은 한나라당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대거 출동=행사장에는 많은 연예인이 ‘빅 2’ 지지자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텔런트 이영후씨와 백일삼씨는 이 전 시장과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했고, 텔런트 정흥채씨는 기호 1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응원전을 주도했다.

박 전 대표 측에서는 텔런트 선우영녀, 전원주씨와 탈북자 출신 방송인 김혜영씨 등이 눈에 띄었고, 선우영녀씨는 기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박 전 대표 지지를 당부하는 열성을 보였다.

베끼고 짜깁고... ‘재탕 공약’

李·朴 호남권 공약 새로운 내용 거의 없어

한나라당이 5일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개최한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대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약 대결=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오후 연설회를 통해 “호남운하를 축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영산강을 살리고 광주와 나주에 내륙항을 만들어 산업과 물류가 새로 일어나는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을 북포권과 남중권, 부산권 3대 권역으로 분리해 집중 육성,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축을 구축해 나간다는 ‘한반도 선벨트(SUN-

BELT) 구상’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와 연설회 등을 통해 “BEST(교육·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주-대구로 이어지는 3각 테크노벨트로 구축하고 이 3개 지구를 각각 BEST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여수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순천, 여수까지 KTX가 가도록 개통하겠

다”며 “호남고속철도도 조기에 착공, 공사기간을 최소 2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베끼기, 짜깁기 공약=이날 두 후보의 공약 중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 대부분은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이미 진행 중인 지역개발사업이나 광주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베끼는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

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기자회견까지 자칭하며 발표한 이 전 시장의 공약 중 이미 추진 중인 상태가 아닌 것은 호남운하 개발 하나뿐이었다. 그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의욕적으로 관련 내용을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한반도 선벨트(SUNBELT) 구상’은 적어도 전남지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목포권 및 광양·순천·여수권 개발 사업을 한데 묶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BEST 특구 공약도 이미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다.

5·18묘지 참배 파안대소·상석 밝은 실수 이어

李 이번엔 “5·18사태” 발언 파문

한나라당 소속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5·18사태’로 표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광주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이날 오전 열린 ‘광주전남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80년 5·18 때 뭐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5·18 사태가 났던 당시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며 “최규하 대통령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다가 5·18 사태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0년 5·18 사태는 광주의 희생으로 민주화의 완성을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민주화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5·18사태’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과거 전두환 등 군부정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고 왜곡할 때 주로 써왔던 표현, 때문에 이 전 시장은 이날 발언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5년에는 국립 5·18묘지 참배 과정에서 5월 영령들의 영정이 비치된 유영봉안소에서 파안대소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며 또 올 5월에는 5·18 묘지를 둘러보던 중 ‘제사상’으로 사용하는 상석을 밟아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5·18 재단 한 관계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의 단상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국민외래 목넘에서도 5월 민주영령에 대한 뜻을 표현하지 않아 일부 참석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李 “대세 고착” 박 “역전 시작” 지키고 잡고... ‘투 트랙 전략’

■ 중반 판세와 중반 전략

◇중반 판세=이 전 시장 캠프는 최근 실시된 수차례의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10~12%포인트 가량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대세 상승론’을 설하고 있다.

특히 대의원에서 최소 15%포인트 이상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전 시장측은 이러한 ‘조직력’에 힘입어 현재 비교적 근소한 우위에 있는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지지율 역시 막판으로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캠프측이 주장하는 지역별 판세는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여론조사 및 대의원 표심 모두 20%포인트 이상 ‘압도적 우세’ ▲부산·울산·경남은 여론조사 ‘백중우세’, 대의원 15%포인트 우세 ▲경북·강원은 ‘백중’ ▲대전·충청·대구 ‘백중열세’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의견상 지지율이 담보상태지만 선거인단의 구성비나 투표참여율, 지역 등을 감안한 이 전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 좁혀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예비후보 전체가 아닌 한나라당 후보 4명만을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할 경우 격차가 더욱 좁혀지며, 순수 한나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항우 전략=양측 모두 ‘우세지역 관리’, ‘열세지역 공략’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토끼’를 단속하면서 ‘산토끼’를 최대한 많이 잡아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전 시장측의 필승전략은 대선론 굳히기와 막판 흑색선전 차단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선론과 관련해선 캠프 소속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로 내려보내 대선론을 바닥까지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 캠프는 향후 ‘수도권+대전·충청·대구’는 ‘백중열세’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의견상 지지율이 담보상태지만 선거인단의 구성비나 투표참여율, 지역 등을 감안한 이 전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 좁혀졌다는 입장이다.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해결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day.co.kr
1588-8499 | 080-222-0100